

# 피서지 공연, 더 흥겹네

## 전남지역 곳곳 휴가철 문화행사

열정적인 공연 만끽하며, 올 여름 더위 식히세요. 휴가철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피서객을 위한 이색 공연이 펼쳐진다. 멋과 흥이 결합된 전라도 가락이 한여름밤을 수놓고, '장기하와 얼굴들' 등이 시원한 무대를 선사하는 락페스티벌도 열린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피서지 인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을 즐기면서 더위도 식히는 '문화 피서'가 가능해진다.

혼자여도 좋다. 귀를 울리는 음악에 흘러, 무작정 걷다가 마주한 길거리 공연. 그제 여행의 꽃이다. '여수 밤바다'를 찾은 관광객은 '낭만 버스커 여수 밤바다' 공연을 추천한다.

여수시는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버스커 공연을 연다. 여수엑스포역과 하멜전시관, 해양공원, 이순신광장, 돌산공원 등 12곳에서는 버스커 공연과 함께 마임, 댄스, 비보잉, 마술, 저글링, 아크로바틱, 마살아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들 12곳에서는 주래퍼, 지하트혼성듀오, 수민싱어, 이어편, 김종기, 김민철, 신미애, 메모리아 혼성 듀엣, 동네친구들, 배동석 등의 뮤지션이 길거리 공연의 진수를 선사한다.

해수욕장에서 우리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색 공연도 눈길을 끈다. 오는 22일 오후 2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는 판소리 다섯바탕을 선보인다. 김선아·고현미·주소연·신기원씨 등이 출연해 심청가 등 판소리를 선사하고, 김용희·정필순·이창환·정석호씨 등이 흥겨운 북장단을 곁들인다. 또 이곳에서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실내악, 창작국악, 풍물놀이, 모듬북 등을 무대에 올



전남도립국악단의 춤극 '춘향'

## 여수시 도심 12곳 마임·댄스·비보잉·마술·버스커 공연

##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판소리 무대...구례선 락 페스티벌

##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설장고·사물놀이 마당극 토요 공연

리는 '즐거자 창작국악' 공연도 열린다. 인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어볼 수 있고, 캠프도 가능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늘과 경기 등지에서 인기몰이 중인 '한여름 락페스티벌'이 올 여름 구례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락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코스협사업연합회는 오는 22일 구례군 용방면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2015 구례 자연드림 락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무대는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노브레인, 데이브레이크, 로 맨틱펀치, 몽키비츠, 워킹에프터유가 출연한다.

공연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10여종의 수제맥주가 판매되며 맥주와 어울리는 풍성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또 식품안전 표시제 체험, 페이스페인팅, 나무 공예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신안·무안·진도 등지의 피서지를 찾은 관광객은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울림터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전남도립국악단의 공연을 보면 어깨춤이 절로 나올 것이다.

오는 8일에는 '설장고로 흥겨운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대나무로 만든 향피리와 대금 등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경기 대풍류'와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민요 '남한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이 울려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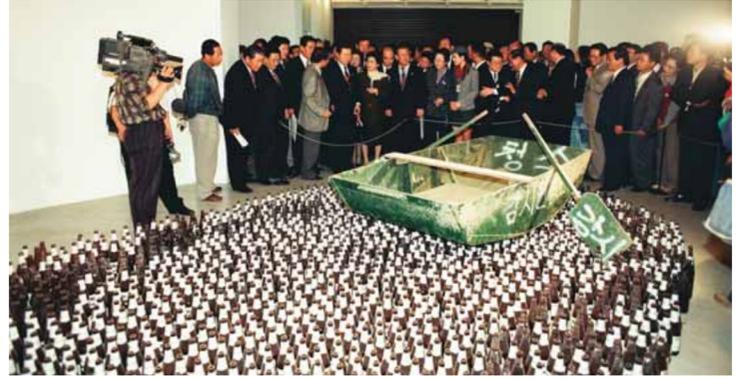
또 오는 15일에는 국악실내악과 사물놀이, 마당창극 '여사상 불막', 피리 3중주, 국악가요 등이 결합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나라' 공연이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장기하와 얼굴들'



여수 '낭만 버스커 여수밤바다' 공연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대표적인 쿠바 작가 크초 알레시스 레이바의 '잊어버리기 위하여'.

## 미술전문가 20명이 뽑은 20세기 한국미술 가장 주목할 전시

# 1·2회 광주비엔날레 1위 올라

## 영향력 있는 미술관은 '국립현대'

광주비엔날레 1회(1995년), 2회(1997년) 전시가 20세기 한국미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로 꼽혔다.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 조직위원장을 지낸 고(故) 임영방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4위에 올랐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관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화랑으로는 현대화랑과 국제갤러리, 대안공간으로는 대안공간 루프와 아트스페이스 풀이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한국 미술 전시공간의 역사'(10월24일까지)전을 준비하면서 미술평론가 윤범모·최열·하계훈·고충환, 대학 교수 양정무(한애중)·강수미(동덕여대)·김미진(홍익대), 전시기획자 김노암·박찬남씨 등 국내 미술전문가 20명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이다.

설문내용은 ▲영향력 있는 한국미술 전시공간(미술관, 화랑, 대안공간 등 3개 영역) ▲주목할 만한 전시 ▲영향력 있는 인물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전시는 최초의 국제미술전인 '광주 비엔날레 1·2회'에 이어, '현실과 발언 창립전'(1980·동산방화랑)과 '민중미술 15년'(1994·국립현대미술관)이 2위에 올랐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비디오매, 비디오팝'(1992), '화이트비엔날레 서울전'(1993), '군대를 보는 눈'(1997), '한국미술 100년'(2005)이 공동 4위였다.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와 '지구의 여백'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광주비엔날레는 각각 관람객 163만 명, 90만 명을 불러 모았다.

20세기 영향력 있는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간송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순이었고, 화랑은 현대화랑·국제갤러리에 이어 가나화랑, 학교재갤러리, 아라리오갤러리 순으로 조사됐다. 대안공간은 대안공간 루프와 아트스페이스 풀에 이어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인사미술공간, 썬스페이스·대안공간 누 순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영암 연소마을서 삼국시대 고분 발굴

### 유리구슬·호영토기·철검편 등 출토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연소마을 주민들이 '말무덤'이라고 부르며 마을의 상징처럼 여겼던 오래된 무덤이 삼국시대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문화예술택단 문화재연구소는 4일 "시종면 신연리 연소마을에서 삼국시대 고분(사진)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고분의 높이는 1.23m, 동·서 최대 13.3m, 남·북 최대 15.5m이다. 주구(무덤 주변에 토랑)의 평면 형태로 볼 때 방형(사각형)으로 조사됐다. 매장 주체부(하부구조)는 합구(슴)식 U자형의 전용 옹관 1기로 확인됐다.

옹관의 외부는 적갈색 점토로 빚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부는 말굽 형태의 황갈색 점토로 마무리했다. 유리구슬, 호영토기편(단지), 철검편



등도 출토됐다.

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발견된 연소마을 고분은 무안 구산리 고분군, 나주 덕산리 3호분 등과 유사한 점으로 미뤄 5세기 중·후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QR 코드